

전남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종합센터

340억 국비확보·722억 투자유치

강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연계

전문가 맞춤 양성...인재 유출 방지

•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발굴

• 구직자·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 혁신도시 분원 설치
기업 밀착 지원

• 고품 규제 프리존 거점
드론산업 육성



설립 13년을 맞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의 가치 창출과 성공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면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154개 지역기업을 지원해 매출 1027억원, 고용 창출 528명의 성과를 거뒀으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과 연구개발(R&D)사업 등 신규사업 30개를 발굴해 340억원의 국비를 따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 7개 기업으로부터 722억원을 투자 받아 257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도 했다. 지역대표 강소기업을 키우는데도 주력

해 ㈜파루와 ㈜케이씨가 전남지역 최초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11억원을 더 받아 국비 280억원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병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을 배경으로 하는 전남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기획 등 6대 주요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역혁신자원을 연계한 지역거점기능 강화 ▲지역 대표 강소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역 과학기술 총괄 지원체계 구축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운영 등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과 관련 뉴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나서고 있다. 고품의 규제 프리존을 거점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등 올해 5건의 정부 신규사업 발굴과 국고예산 반영을 목표하고 있다.

산·학·연·관 연계에 있어서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업 간·사업 간 네트워크 융합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내 분원 개설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기관장 중심의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산업 전반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게 된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확대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20개 업체보다 10개가 늘어난 30개사를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포함되도록 하고,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주력산업인 금속소재 가공산업과 뿌리산업,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 및 세라믹산업,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개발 능력 향상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지원기업에게 제품고급화와 공정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서 지역과학기술 총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남 과학기술 발전 기본계획과 진흥체계를 정립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효율적 활용 촉진을 위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R&D 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수요인력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의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해 예비인력 및 구직자 대상 현장 실무교육 등도 실시한다. 석·박사 등 유능한 연구인력의 타 시도 유출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 취업자와 중소기업 교류지원 활성화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김병일 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위한 실천적 사업추진을 위한 당면 현안으로 동부권 순천에 소재하는 본원과 별개로 혁신도시 내 서부권 분원을 설치해 도내 기업들의 상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03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다. /윤현석기자chadol@

기고

김병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남 드론산업 제대로 키우려면



최근 정부는 전남지역 전략산업으로 에너지산업과 드론(무인기)산업을 선정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취지다. 지금 세계는 군사용으로 이용돼왔던 드론을 민간시장으로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용 드론 산업에 투자를 갈수록 늘리고 있다. 일본은 택배 산업에 드론을 투입하고, 중국은 방대한 경작 면적에 따른 농약 살포용 드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최근 구글은 아마존에서 드론 택배사업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에서 드론이 유지할 수 있는 중량은 2kg 이하인데 다 낮은 출력에 비행시간은 15분 이내 이어야 하는 등 여전히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민간용 드론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품에 이런 법과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드론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얼마전 필자는 중국의 드론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을 다녀왔다. 완구형 드론기업에서부터 농약 살포용과 군사용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까지 5개 기업을 방문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만 드론 생산업체가 6000개가 넘는다는데, 그 중에서 민간용인 경우 상위 5개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모조품을 만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H사는 농약 살포용 드론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과실나무의 꽃가루 접종을 위해 제작한 드론이 농약 살포용 드론 개발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듯 중국 드론산업이 쉽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관련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중국은 방대한 농경지 면적에 농약을 살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 적정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 보급이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용 드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드론 관련

보유기술은 세계 최고의 이스라엘과 동일 수준인 1군에 속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드론은 90% 이상이 군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군사용 드론이 민간 영역으로 넓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용 드론산업을 육성해 현재 세계 1위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저렴한 저가로 산업기술 인프라가 확대돼 드론 선도국가가 됐다.

중국의 드론 산업도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기술에 의해 급성장하다 보니 드론의 품질이 저급 수준이었고 드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두번째로 드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각색의 드론 생산으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제품 생산 업체가 우수축순 격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드론에 대한 법규들이 완비되지 못해 해외 수출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별 교육과정을 두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드론 학교를 설립해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40세 이하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끈임 없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선두 기업인 DJI(대장 혁신과학기술) 회사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이 드론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시장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현재 드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군사용으로는 세계 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양성, 표준화, 법규 등을 시급히 마련해 해양 감시, 섬 지역 물류 수송, 불법어로 감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계 드론 시장을 충분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광동성과 같이 고품지역을 규제 프리존 설정을 통해 드론 산업을 육성한다면 드론 산업의 선도국가 그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을 배경으로 하는 전남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기획 등 6대 주요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기에 더 안전한 수력,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지구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